

서산지역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도시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박동소^{1*}

¹한서대학교 건축학과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ttlement Environments considering Survey of Residents in Seosan, Chungnam

Tong-So Park^{1*}

¹Department of Architecture, Ha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의 규모이며, 도농통합시의 형태로 전통적인 농업기반지역사회에서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외부인구의 유입요인을 갖고 있는 충남 서북부에 위치한 서산지역의 도시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본 연구는 서산의 도시발전이 도시의 외연적 팽창보다 지역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근저로 한 도시환경 정비와 개선에 있음을 인식하고 서산지역의 정체성을 되살려 이를 도시정주환경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도시 가꾸기, 도시 디자인,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과 같은 도시의 최근 이슈를 살펴보고, 도시 가꾸기를 위한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서산지역 주민의 도시정주환경에 관한 의식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서산다움이라는 정체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서산시청 전면의 도시공원 개선방안에 관한 도시환경개선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 펼쳐질 서산의 도시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pose a improvement guide for the region of Seosan located at the north-west part of Chungnam province. Thus, this study recognizing that urban revitalization design of Seosan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inheritance of regional history and traditional culture. This study was processed with following procedures and methods. First, this study drew the recent trends and effective ways as proportion system of urban revitalization design through collecting and analyzing literatures. Second, performed to the survey of the consciousness consider urban environmental settlement of residents in Seosan using a statistical method. Third, carried out case studies as urban revitalization design of central area in Seosan.

Key Words : Urban Revitalization Design, Consciousness Survey, Settlement Environment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의 중소도시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를 비롯하여 사회·문화·경제분야에서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는 과도기적 과정에 있고, 이에 따라 서산지역의 도시정주환경도 근본적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이전의 도시가 양적 성장위주의 팽창형 도시였다면 이제는 도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살려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살리는 도시

정주환경 개선 등 도시 가꾸기와 같은 질적 위주의 도시 관리체제로 변화하고 있다.[1] 서산지역에서는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도시계획의 목표도 도시정주환경의 쾌적함, 풍요로운 삶의 추구를 반영하여 아름답고 품위있는 도시 가꾸기로 전환하는 도시 디자인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산지역을 비롯한 충남지역의 도농통합형 도시에서는 경쟁적으로 도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도시의 자기다움, 즉,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지역의 역사·문화,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하여 형성되는 도시

*Corresponding Author : Tong-So Park

Tel: +82-41-660-1037 email: tongSOR@hanseo.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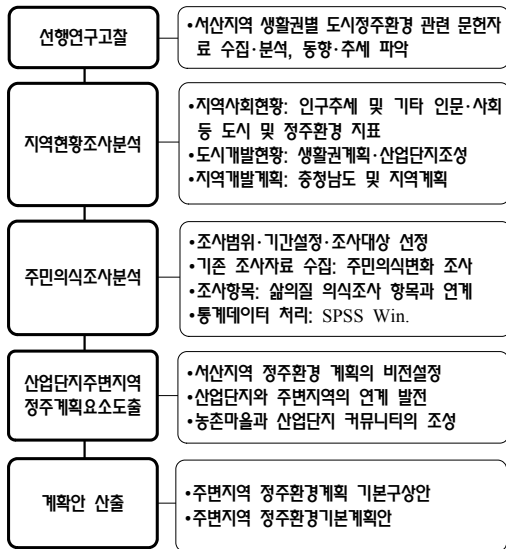
접수일 12년 09월 13일

수정일 12년 09월 27일

게재확정일 12년 10월 11일

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획일적이며 몰개성적인 도시로 정체 · 쇠퇴되는 심각한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4-6].

서산시는 충남 서북부의 거점도시로 서해안고속도로의 완공 이후,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과 지역산업의 성장에 따라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보다 쾌적한 도시정주환경에 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서산지역으로 전입한 주민을 중심으로 서산의 도시정주환경에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욕구를 반영하여 서산시는 도시정주환경 개선을 통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디자인 명품도시 건설을 선언하였다[7]. 도시정주환경을 디자인하고 바꾸어가는 것은 무엇보다 고유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도시에 감추어져 있는 역사·문화적 흔적을 발굴하여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도시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데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서산지역에서 펼쳐질 새로운 패러다임인 도시 바꾸기를 위하여 도시디자인에 관한 현재의 이슈를 살펴보고, 한편으로는 서산의 도시현황을 돌아보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서산의 도시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Fig. 1] Flowchart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산의 도시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바꾸기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첫째로, “도시 바꾸기”, “도시 디자인”,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과 같은 이슈를 고찰하여 지방중소도시의 정주환경개선과 도시

가꾸기의 주요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서산시의 도시현황을 서산도시기본계획 2020을 참조하여 서산의 생활권, 산업경제계획, 경관계획을 살펴보고, 셋째로, 서산의 도시 정체성을 살펴보고자 2000년에 발표된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의 지역주민의식조사를 인용하였다. 이와 함께 서산중심부 도시정주환경개선방안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펼쳐질 서산의 도시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바꾸기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서산도시 현황 고찰

2.1 선행연구 고찰

우리 사회는 디자인이 국가 이미지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정부는 도시경관, 공공건축을 비롯하여 가로시설물 등 공공디자인에 대한 총괄조정체계를 도입하는 디자인 코리아를 발표하였다. 도시 디자인은 일상 생활공간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역사·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2007년 5월에는 경관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관조례를 갖추어 도시디자인, 도시 바꾸기를 위한 경관행정을 펼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도시 디자인에 관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행정조직에 공공디자인 부서를 설치하고 도시 디자인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한편, 도시 바꾸기의 추진동력은 무엇보다 지역공동체와의 협업에 있다. 도시 바꾸기의 추진과정에는 추진주체에 따라 역할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 바꾸기를 위한 도시 디자인은 도시의 정체성을 발굴하여 지역 공동체의 삶을 원활하고 활기차게 약속하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공공성을 전제한 것이다. 이는 도시계획의 행정 행위의 개념을 극복하여 도시 바꾸기 추진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합일점을 만들어 가고, 이를 통하여 도시경관, 공공재 개념의 개별건축, 도시시설물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아우르는 통합개념의 디자인을 전제한다.

도시 바꾸기, 도시 디자인,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은 도시 환경을 치장하는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문화에 가치를 두고 지역 공동체를 근간으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는 공동체의 삶을 어떤 목표와 철학으로 담아낼 것인지 도시민의 삶을 약속하는 사회적 의제라 할 수 있다[1].

서산시는 디자인 명품도시 건설을 선언하면서 서산의

건축물과 도로, 공원 등 도시경관 전 분야에 걸쳐 실용적이고, 창의적이며 서산의 지역성을 살리는 디자인 도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산시는 이미 2010년에는 중앙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디자인 도시화를 도입하고 서산시의 주요 지역에 이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서산시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도입과정은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에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추진체계는 도시 가꾸기의 제도적 정착단계에서 도시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기반을 구축하며,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산의 도시경쟁력 수준은 2007년 기준으로 25위를 점하고 있으며 서산시 종합발전 방향을 설정하면서 내포약사문화의 관광자원화와 연계하여 해미읍성복원과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도시 「Art City 서산」, 미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품격 전통도시 「History Town」 등의 여러 가지 혁신적인 사업이 제안되었다[8-9].

2.2 서산지역의 도시정주환경 현황

서산시는 1995년 서산시·군이 통합되어 도농통합시로 출범하면서 현재의 도시체계가 정착되었다. 인구규모는 2012년 5월 기준 164,345명 규모로 2007년 수립된 「2020 서산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항만을 근거한 교통·물류거점도시, 자동차, 석유화학 클러스터, 도·농복합형 자족도시를 도시발전상으로 추진하고 있다.[9] 도시공간구조는 1도심과 서산, 대산, 지곡·성연, 운산, 해매, 부석의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산중심생활권은 서산관아문이 위치하던 곳에 시청이 자리잡고 도심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2] 서산지역의 생활권 계획[12]
[Fig. 2] Planning of Settlement Region[12]



[그림 3] 경제산업계획[12]
[Fig. 3] Planning of Economy & Industry[12]

도심생활권에는 서산시청을 비롯하여 금융, 업무시설과 터미널, 재래시장 등 상업기능이 밀집되어 있다. 대산지역은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석유화학 비즈니스의 중심을 담당하는 한편,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선정과 함께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클러스터, 서산테크노벨리, 대산일반산업단지, 대죽산업단지, 서산제2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 조성이 구체화되면서 외부 인구의 유입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산국가항만 및 국제페리터미널이 건설되고 있어 향후 당진국제항만과 함께 중부서해안지역에서 서산이 담당하게 될 국제물류 기능에 대한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산 및 지곡·성연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조성은 타도시로부터 산업단지 종사자의 전입으로 서산중생활권에 고층아파트단지의 조성이 가속화되는 요인이 되어 행정, 업무, 상업, 주거기능을 담당하는 서산도심생활권의 배후정주기능에 대한 개발밀도가 높아지고 도심지역의 과밀화와 난개발 등 도심개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등 도심생활권에 야기된 교통, 주차, 상업시설의 난립 등에 관한 도시환경개선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 한편, 해미생활권은 읍소재지로 서산의 대표적인 역사유적인 해미읍성이 있고 공군부대와 자동차부품산업시설이 입지하여 산업단지 종사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단기체류하는 건설분야 근로자 등 유동인구의 집중으로 도시환경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3. 도시 정주환경 주민의식조사

3.1 조사개요

도시의 고유한 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은 지역의 도시 형태와 도시경관을 특징지을 뿐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3]. 본 연구에서는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수립을 위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등록인구 1,375,815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2000년 4월에 면접조사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서산지역의 도시 정체성을 읽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15,16]. 설문조사항목은 도내 각 지역별 정주여건, 지역의 문제점, 잠재력,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의 발전방향 등에 관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의 주민의식조사 결과 중에서 지역별 정주환경에 관한 주민의식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를 서산지역의 도시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서산지역주민의 정체성을 읽기 위하여 주제별로 선별하여 그림 4에서 그림 9까지 정리하였다. 각 주제별 의식조사결과를 서산지역과 인접시군지역 주민의 응답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재구성하였다. 각 그래프는 서산지역과 인접지역인 당진, 홍성, 예산, 태안 지역으로 구분하여 서산주민의 응답결과와 상호 비교하여 서산지역 주민의 도시정체성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4는 지역발전의 잠재요인에 관하여 서산지역 주민은 서해안고속도로의 완공에 따른 지역발전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어 천안, 아산, 보령, 논산의 경우와 같이 철도노선이 개설되어 있는 지역과 달리 서산은 수도권 등으로부터 접근성이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공주시의 경우 역사문화자원을 주요 잠재요인으로 응답하고 있고, 논산시의 응답결과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역사문화자원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는 것과 대조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는 홍성의 경우 서해안고속도로와 역사문화자원의 잠재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태안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자연경관의 잠재력이 주요인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지역의 도시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과 그림 7의 20년 후 지역의 발전상에 관한 항목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관광레저와 교육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태안의 경우 관광레저도시를 지향하는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접 타시군의 응답결과와 비교할 때, 서산은 지역특징이 모호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8과 그림 9에서는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도시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문화·예술, 교육, 관광, 전원도시, 첨단산업과 같은 차별하고 청정한 도시이미지와 부합되는 항목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서산의 경우 기존 도시특성과 부합되지 않는 문화·예술, 교육, 관광부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어 향후 서산의 도시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서산의 도시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3.2 주민의식조사 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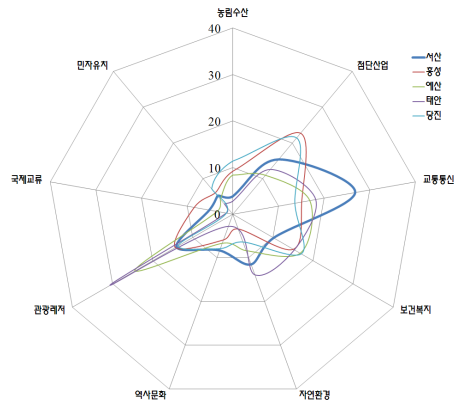
서산지역 주민의 도시정주환경에 관한 의식조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서산지역주민의 서산다움에 관한 인식은 지역발전의 주요 잠재요인에서는 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가장 주요한 지역의 발전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0년 후의 지역발전은 관광레저와 물류, 교육연구, 제조업의 순서로 응답되어 공주, 보령 등의 도시와 비교할 때, 도시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의 중점육성분야에서도 서산의 지역적 특성, 즉, 천혜의 자연,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자족기능의 강화와 같은 특징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에 관한 항목에서는 서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가장 주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결과를 종합하면, 서산지역의 도로체계 개선에 따른 접근성의 개선과 함께 국제해상교통의 거점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지역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형 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한편, 서산다운 도시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아 지역의 역사·문화를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정체성 고취와 함께 도시정주환경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조사시점이 현시점과 시간적 거리가 있고, 응답자의 성별, 나이, 직업, 소득수준, 교육정도, 지역거주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료하지 않고, 응답자수도 지역별로 일관되지 않아 주민의식성향을 개략적으로 추론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향후 서산시에서 도시정주환경개선을 통한 도시 가꾸기를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산지역 주민의 정주환경에 관한 의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서산다움을 도출하여 이를 계획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서산 도시 정주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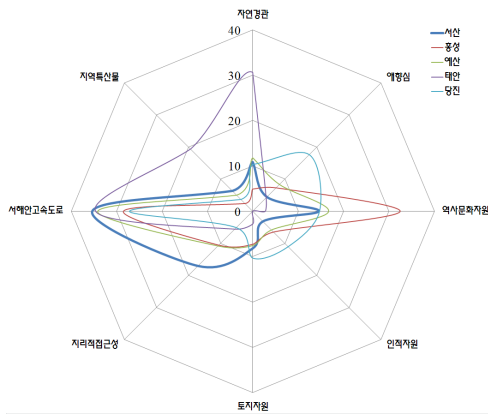
4.1 도시정주환경 정비계획의 정체성 확보

서산시의 도시정주환경 개선계획은 주민의식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서산지역 중심생활권역의 중심인 서산 시청 전면에 도시공원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사항으로는 서산시청의 외등현과 관아문루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준점으로 하여 옛길을 보행자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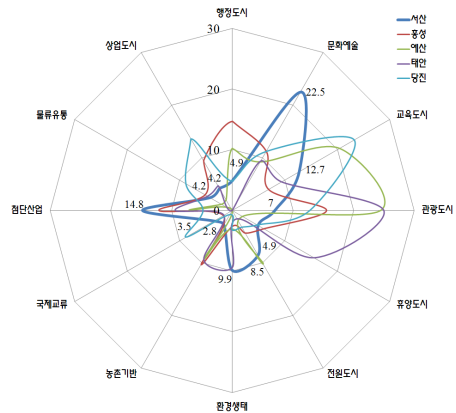
용도로 재생하여 도시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이와 함께 시청 전면 도시공원의 보호수와 송공비를 제외한 도시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외래종의 조경수목과 위령탑 등을 향후 조성되는 나라사랑공원으로 이전하여 도시공원의 산만함을 개선하는 한편, 한층 서산의 정체성을 도시경관에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서산의 정체성을 도심에 살아있는 역사·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동헌, 관아문루, 객사 등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서산의 중심생활권에는 현재 관아문루와 외동헌으로 상징적인 형태만 드러낸 채 도시공간의 기능과 단절된 채 방치되어 관아문루의 전면을 광장으로 조성하여 중심생활권의 역사적 상징성을 부각하고 다양한 도시활동을 담은 도시광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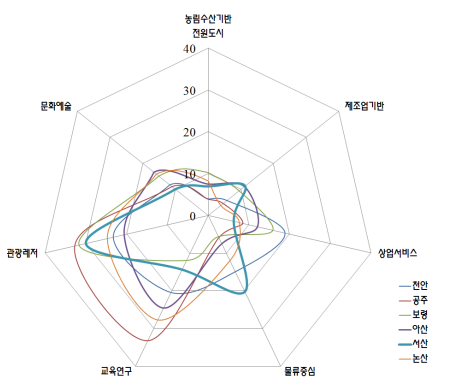
[그림 6] 희망 중점육성분야
[Fig. 6] Main Promotional Fie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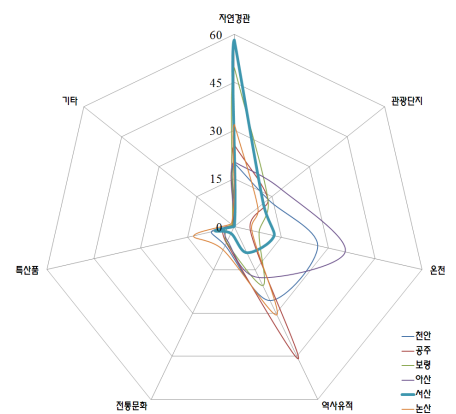
[그림 4] 지역발전의 잠재요인
[Fig. 4] Potential Factor of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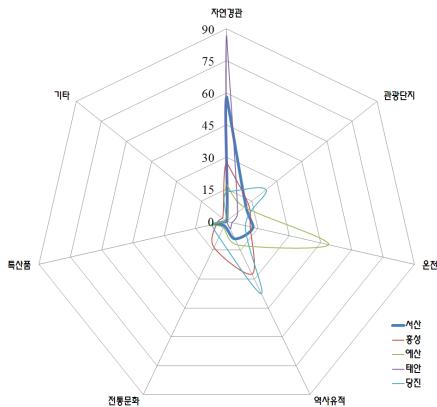
[그림 7] 도시발전방향
[Fig. 7] Direction of Development



[그림 5] 20년 후 지역발전상
[Fig. 5] Future Image of Region



[그림 8] 지역 주요관광자원(시지역)
[Fig. 8] Main Source of Tourism: Seosan



[그림 9] 지역별 주요관광자원(인접지역)
 [Fig. 9] Main Source of Tourism:

한편, 서산시청사 본관의 전면은 콘크리트 파라펫, 벽면타일, 백색알루미늄창틀로 구성되어 청사 전면 우측의 시의회건물과 좌측의 별관건물과 색채, 형태 등 건축의장 측면에서 디자인 요소가 서로 상충함으로써 산만한 경관을 조성하여 상호 조화되지 않고 있다. 제안 사항은 청사 본관의 벽면 리모델링을 통하여 첨단소재의 건축재료를 사용하여 미래지향적이며 밝은 이미지를 부여하는 한편, 본관의 파사드를 구성하는 의장요소를 최소화 하며 청사 전면 디자인 요소의 통일감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청사 전면의 외동헌과 관아문루의 상징성을 부각하도록 배경역할을 함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서산의 도시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기존에 제안된 도시환경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향후 서산의 도시정주환경 개선의 기준점은 서산시청의 동헌과 관아문루에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헌과 관아문루, 객사는 서산도심에 보존된 역사·문화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요소로 이는 도시 가꾸기를 비롯한 디자인에서 서산다움이라는 서산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 디자인 요소는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여 상징적 요소를 상호 네트워킹화 하는 방안으로 기존 도로의 역사성 복원을 통한 도심의 역사길로 복원하는 방안도 도시 가꾸기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장소성의 의미를 찾는 것은 서산지역의 역사적 흔적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유·무형 역사적 흔적을 발굴함과 동시에 이를 하나하나 꿰어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한편, 서산의 도시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다. 성장위주의 경제논리가 지배했던 도시정책은 지역에 축적된 역사·문화의 맥락을 왜곡하게 되어 고유한 도시환경을 보존하지 못하였다. 이는

역사·문화적 독자성을 상실하여 서산지역 뿐 아니라 모든 도시가 유사한 건축양식과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었다. 이와 같이 도시가 지역의 고유한 독자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되면서 지역 주민의 정체성이나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상실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서산시가 최근 펼치고 있는 도시미관 조성사업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펼쳐지는 도시정책은 건축물, 도로, 공원 등 도시경관 전 분야에 걸쳐 서산의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서산다움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도입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

4.2 도시정주환경개선 추진체계의 구축

서산시는 시 전역에 걸쳐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도시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1호광장에서 삼일상이 4거리에 이르는 800m와 변화1·2로 등을 빛과 젊음, 자유를 테마로 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계획을 세우고 각종 표지판과 가로등, 화장실 등을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디자인으로 개발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한편, 도심에 시민공원과 생활체육공원, 썬지공원 등도 함께 조성해 도심의 청량감을 제공하고 녹지비율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동문2·3·읍내·석남·해미지구 등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경관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환황해권시대 중심도시'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계획을 펼쳐가기로 하였다. 또한 회색도시 벽화그리기와 담장 허물기, 공영주차장을 확대함으로써 "사람과 자연,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내·외적인 아름다움이 고루 조화를 이루는 도시 가꾸기를 펼쳐가기로 하였다. 공공디자인의 경우 건축물과 연계되지 않고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획일적으로 규제 및 정비한다고 경관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 먼저 형태적으로 도시 윤곽을 이루는 건축물과 함께 가로, 옥외광고물, 시설물, 설치물, 경관조명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하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사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서산지역의 도시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출발점은 지역 자원의 발견과 이를 창조적으로 육성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발굴하고, 창조적으로 이끌어 내는 지혜를 키워야 한다. 서산은 시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중심생활권역과 나머지 절반의 인구가 농어촌에 근간을 두고 상호 공존하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도시다. 이러한 서산이 갖고 있는 자원을 발견하고 이를 도시 가꾸기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시대의 요구를 파악하고, 장소성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과거와 현재가 소통함으로써 미래를 펼쳐갈 수 있다. 장소성의 의미를 찾는 것은 서산지역의 역사

적 흔적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서산의 유·무형 역사적 흔적을 발굴함과 동시에 환경과 경관 등 서산의 독특한 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하나하나 꿰어 이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한편, 서산의 도시 브랜드로 서산의 아이덴티티로 정착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서산지역과 같은 지방의 농·산·어촌을 근간으로 하는 중소도시는 도로개설에 의한 접근성의 개선, 농공단지 조성에 의한 산업구조의 개선, 출산지원금의 지급, 귀농장려정책 등 지방도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인구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경제가 위축되고 지역학교가 폐교되는 등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2] 도시계획의 최우선 계획이 인구지표를 기초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배정이 인구지표를 기준으로 펼쳐지고 있어 지자체는 지역의 인구 늘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방 중소도시는 기존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서서히 인식하게 되면서 도시의 경쟁력이 지역의 역사·문화 발굴하여 도시에 되살아나게 하고, 쾌적하고 아름답게 디자인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세우는 데 도시의 경쟁력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외연적 확산에서 성장·쇠퇴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한 층 도시 가꾸기에 지자체의 행·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서산지역은 충남의 서북부에 위치하여 자연환경과 대산항의 국제적 물류기능을 비롯한 자동차·석유화학 클러스터의 자족기능을 보유하여 인구증가가 지속되는 지역이다. 이와 함께 인근에 내포신도시와 당진시의 출범은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어서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산지역은 대내외적으로 유리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고 도농통합시으로써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2·3차 산업에 의한 산업 및 자본주의 가치관이 만나는 속성을 담고 있다. 또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서산에 유입·정착하는 인구로 인하여 도심권의 행정·금융·상업을 비롯한 도심생활권의 도시기능은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되었고, 낙후된 도시경관의 개선요구는 한 층 거세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도시개발로 인하여 점차 사라지고 있는 유·무형의 서산다움을 살아나게 하여 도시속에서 서산다움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산의 도시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로서 서산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안에 관하여 서산의 도시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분석하는 한편, 그 동안 제안되었던 서산도시정주환경개선에 관한 도시정비사례를 통하여 앞으로 서산에서 펼쳐질 도시정주환경 개선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References

- [1] Min Su Kim, Proper Identity of Urban design, Looking for Seoul, Institute of Social science, SNU., 2009. 5.
- [2] Jung Sik Kim, et al., Establish Concepts of Rural Identity, Jpurnal of Hankyung University, Vol. 34, p.167-179, 2002. 12.
- [3] Han Bae kim, Identity & Landscape Planning of Korea, AKCHG, Proceedings p.254, 2004.
- [4] Hyun Su Kim et al., Living City Planning: from Urban to Village, 2006. 7.
- [5] Tong So Park et al. A Study on the Planning of the Settlement Environment considering Survey in the Periphery of Local Industrial Park in Hongseong, Chungnam, KAIS, Journal of KAIS, Vol. 12 No. 4, p.1968-1975. 2011,
- [7] Chul Hee Park et al., Guidelines of Public Environment Color of Streets of Seosan, KSCS, Vol.25, No.3, 2011.
- [8] Seosan, Future City Policy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eosan, p.26-32, 2003. 12. 23.
- [9] Seosan, The Year of 2020 Strategy of Seosan Development, KIPA, 2008. 12.
- [10] Jung Jin Shin, Technics & Program of Residents Participant Village Retrofit, Urban & Poverty, Vol.52, p.47-62, 2001. 10.
- [11] Hee Sam 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ning of City Bus Terminal, Kunkook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2007.
- [12] Jun Ho Jang, An Evaluation of Community and Project in Japan, with reference to Revitalization Project of Japan, Housing Research, Vol.8 No.2, p.72-99, 2000.
- [13] Byung sun Choi,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Planning Paradigm in the Urban Planning Charters, Korea Planners Association, National Land Planning, Vol.36 No.5, p.14-16, 2001.
- [14] Chungnam, The 3rd Plannign of Chungnam Development 2000-2020, p.439-447, 2001.
- [15] Chungnam, Landscape Planning of New City for Chungnam Provice Office, Chungnam, 2005.

- [16] Chungnam, A Study on the Cultural Infra & Urban Culture of New City for Chungnam Province Office, KICT, 2008.
- [17] Sang Hun Han, A Study on the Burde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Gyeongju City, Research of Gyeongju City, Vol.20 No2, 2012.
- [18] Sang Hee Hong, A study on the Structure of Regional Image for Establishment the Korean Local City Brand, KIDC, Vol.18, No.1, p.516-526, 2012, 3.
-

박 동 소(Tong-So Park)

[정회원]



- 1988년 2월 :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공학사)
- 1995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공학석사)
- 1998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물에너지시스템, 도시환경